

박찬호·전상현 “올스타 팬투표 1위 … 성적으로 보답”



KIA 타이거즈의 박찬호와 전상현이 “성적으로 팬들의 응원에 보답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KIA는 최근 발표된 올스타전 베스트12 명단에 9명의 이름을 올리면서 최다 베스트 배출팀이 됐다. ‘에이스’ 양현종은 최다 득표의 영예까지 차지했다.

‘별들의 잔치’에서 KIA가 주인공이 됐지만 아쉬움을 삼킨 두 사람이 있다.

“올스타전에 꼭 가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던 유격수 박찬호와 투수 전상현은 최종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중간투수와 유격수 부문 후보였던 전상현(118만 6887표)과 박찬호(121만 9077표)는 나란히 팬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선수단 투표에서 밀려 정우영·오지환(이상 LG)에 베스트 자리를 내줬다.

아쉬움은 남지만 두 사람은 “감동이었다”며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유격수·중간투수 1위 했지만
선수단 투표서 ‘베스트 12’ 내줘
팬들의 많은 투표에 감동
가을야구 목표 향해 최선

박찬호는 “다른 것 다 필요 없다. 팬들의 응원에 감동했다. 솔직히 올스타전에 가고 싶기는 하지만 못가면 어쩌나. 내가 121만 표를 받았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며 “(베스트가 된) 오지환 형이 나보다 인지도도 높고 훨씬 잘하는 선수다. 그건 사실이다. 오지환 형이니까 인정한다”고 웃었다.

이어 “121만 표를 생각하면 몽클하다. 육박기 바빴던 선수였는데 드라마 같다. 이렇게 성장해서 많은 표를 받았다. 결국 언젠가는 더 잘 될 것이다”며

“수훈선수가 돼서 그라운드 인터뷰에서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박찬호는 자신의 각오대로 올스타 베스트 발표 이후 첫 경기였던 6일 경기에서 KT 데스파이네를 상대로 솔로포를 터트리면서 득점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이날 경기가 1-8패로 끝나면서 박찬호는 아쉬움을 삼켰다.

전상현도 “많은 표를 주셔서 감사하다. 내가 못해서 안 된 것 같다. 아쉬움은 있지만 그보다는 팀이 더 중요하다. 팀이 올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한다”며 “당연히 안 될 것이라는 예상은 했다.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했다. 팬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다. 많은 팬이 볼 때마다 올스타 투표 이야기 해주시고 격려 메시지도 보내주시는 등 응원 많이 해주셨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투표 많이 해주셔서 진짜 감동했다. 그 고마운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잘해야 한다. 아직 가을 야구라는 목표는 남아있다. 그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박찬호



전상현

팀 K리그 김상식 감독 “콘테의 코 납작하게 해봐야죠”



손흥민

13일 토트넘 상대할 ‘팀 K리그’ 24명 발표
“손흥민 대인마크 고민…이승우 많이 뛰게”



김상식 감독

“콘테 감독님 코를 납작하게 해봐요.”

팀 K리그를 이끌고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홋스퍼를 상대하는 김상식 전북 현대 감독이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다.

7일 팀 K리그 24명의 선수 명단이 발표됐다. 아시아 최고 리그 중 하나인 K리그의 자존심을 걸고 손흥민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즐비한 토트넘과 한판 대결을 펼칠 선수들이다.

팀 K리그 사령탑을 맡은 김상식 감독과 코치로 그를 보좌하는 김도균 수원FC 감독은 이날 유튜브를 통해 토크쇼 형식으로 선수 면면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비록 친선경기지만, EPL 새 시즌 개막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토트넘은 진지하게 승부에 임할 전망이다. 올해 2022 카타르 월드컵이 11월에 열리기 때문에 EPL은 예년보다 이른 8월 초 새 시즌을 시작한다.

김상식 감독은 안토니오 콘테 토트넘 감독과 지략대결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 콘테 감독님 코를 납작하게 해봐요”고 큰소리쳤다.

김도균 감독도 “느낌이 좋다. 현재 K리그에서 가장 뚜렷하게 활약하는 선수들, 대표급 선수들이 팀 K리그에 있다.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힘줘 말했다.

다만, 지난 시즌 EPL 득점왕에 오르는 등 절정의 기량을 과시하는 손흥민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숨기지 않았다.

사회를 맡은 박문성 해설위원이 손흥민에 대한 대처 방안을 묻자 김상식 감독은 한동안 말없이 김도균 감독을 바라봐 웃음을 자아냈다.

이윽고 김상식 감독이 싸움닭으로 대인 마크를 시켜야 하나”라고 말하자 김도균 감독 역시 턱을 고고 생각에 잠긴 채 아무런 말을 못했다.

‘절친’ 사이로 유명한 김상식 감독과 김도균 감독은 깨알 같은 입담 대결을 펼치기도 했다.

김도균 감독이 “(전북의 우승 경쟁 팀인) 울산 소속 선수들 많이 뛰게 하는 것 아니냐”고 농담하자 김상식 감독은 “(수원FC 소속인) 이승우를 많이 뛰게 하겠다. 충분히 유럽 도전 다시 할 수 있다. 토트넘 보내자”고 맞받았다.

/연합뉴스



이승우

전남드래곤즈, 경남과 1-1 무승부 … 6경기 연속 무패 행진

K리그2 25라운드

전남드래곤즈가 6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달렸다.

전남은 지난 6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K리그2 25라운드 경남FC와의 홈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번에도 이장관 감독의 프로 데뷔승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전남은 6경기 연속 지지 않는 싸움을 했다.

이날 ‘광양제철소의 날’ 행사가 진행되면서 평일 경기임에도 1906명이 입장해 관중석 분위기는 뜨거웠다. 하지만 팬들의 뜨거운 응원과 달리 초

반 흐름은 좋지 못했다.

전반 8분 만에 경남 이광진의 크로스에 이은 고정민의 헤더가 작렬하면서 전남이 선취점을 내줬다.

또 상대 외국인 공격수 에르난데스의 거센 공세에 골키퍼 김다솔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전반 흐름은 좋지 못했지만 후반전 전남이 분위기를 바꿨다. 발로텔리의 골대를 강타한 슈팅이 나오는 등 전남이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아쉬운 실축도 나왔다. 후반 28분 전남이 페널티킥을 얻어냈지만 키커로 나선 김현욱의 슈팅이 경남 골키퍼 손정현의 손에 걸렸다.

후반 39분 패배 위기의 팀을 구하는 좋은 크로

스와 헤더가 나왔다.

오른쪽 측면에서 이훈권이 길게 크로스를 올렸고, 문전에 있던 박인혁이 뛰어올라 헤더로 경남의 골망을 흔들었다.

이후 전남이 몇 차례 위협적인 공격 장면은 연출했지만 추가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경기는 1-1 무승부로 마무리했다.

전남 사령탑에 오른 뒤 5번째 경기를 지휘한 이장관 감독의 첫 승도 다음으로 미뤄졌다.

전남은 오는 10일 오후 7시 30분 충남 아산의 안방으로 가서 승리에 도전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호날두 이적설 … 올리버 칸 “뮌헨과 철학이 안 맞아”

이적설에 휩싸인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7·포르투갈)가 적어도 독일 축구 명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는 일은 없을 전망이다.

올리버 칸 뮌헨 최고경영자(CEO)는 7일(한국 시간) 독일 스포츠 매체 키커와 인터뷰에서 호날두를 영입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칸 CEO는 “호날두를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으로 평가하지만 우리 구단의 철학과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프로축구 유벤투스에서 활약하다가 지난해 8월 12년 만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돌아온 호날두는 최근 이적설의 중심에 섰다.



호날두

3일 미국 스포츠 매체 ESPN은 “호날두가 2022-2023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에 출전하고 싶다면 올여름에 다른 팀으로 이적하겠다는 뜻을 구단에 전했다”고 보도한 것이 시작이었다.

또 4일 진행된 맨유의 프리시즌 첫 팀 훈련에도 가족 사유로 불참해 맨유와 결별설에 불을 지폈다.

/연합뉴스